KIA 안방 '행복한 고민'

'공격형 포수' 김태군·한준수 수비 좋고 방망이 '화끈'

한승택·권혁경·이상준 등 자원 풍부…경쟁 치열해져

KIA 타이거즈의 김태군과 한준수가 하위타순에서 좋은 타격을 선보이는 등 뜨거운 포수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의 안방 경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랜 시간 포수 고민을 해왔던 KIA는 올 시즌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김태군이 일단 안방의 한 축을 형성했다.

KIA는 최근 몇 년 포수 고민 해결을 위해 '을'의 입장에서 연이어 트레이드를 시도해 우려를 사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도 삼성과의 트레이드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영입한 김태군과 다년계약을 하면서 포수 조각을 맞췄다.

김태군으로 중심을 세운 KIA는 '예비역'들로 경쟁 바람을 키우고 있다.

일단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시즌 중반 1군에 가세했던 한준수가 두 번째 포수 자리를 선점했다.

KIA는 개막 엔트리에 김태군, 한준수, 한승택 등 3명의 포수의 이름을 올렸었다. 김태군으로 경기를 풀어간 뒤 결정적인 순간 포수 자리에 대타를 활용해 점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전략에 따라 김태군이 경기를 열고 한승택이 승리를 완성하는 흐름이 전개됐다.

하지만 개막 엔트리에 빠져있던 윤영철이 선발 등판에 맞춰 등록되면서 한승택이 빠지면서, 김태군과 한준수 체제로 안방이 돌아가고 있다.

한층 강해진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KIA의 도루 저지율은 0.667로 가장 높다. 올 시즌 팀에 복귀한 타케시 배터리 코치가 우선 강조하는 게 '도루 저지'이기도 하다.

타석에서도 포수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김태군과 한준수는 '8번'에서 하위타순의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이범호 감독과 '1푼 올리기'를 약속한 김태군은 5경기에서 12타수 4안타 1볼넷으로 0.333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태군은 지난 시즌에는 0.257의 타율을 남겼었다.

'공격형 포수'로 꼽는 한준수는 시원한 타격으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두 경기에서 교체 멤버로 들어가 한 타석씩만 소화했던 한준수는 3월 31일 두산전에서 시즌 첫 선발 출장에 나서, 2루타로 안타를 개시했다. 2일 KT전에서는 3안타를 생산하면서 타격 강점을 확실히 보여줬다.

김태군과 한준수 조합으로 꾸려진 1군 안방, 퓨처스리그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포수들도 있다.

권혁경도 한준수 뒤를 이어 '예비역' 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군 복무를 마친 권혁경도 타격으로 많은 기대를 받는 포수다. 일본 고치에서 진행된 퓨처스 캠프에 참가해 복귀 시즌을 준비한 그는 실전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KT와 시범경기가 열렸던 지난 3월 16일 챔피언스필드에 콜업돼 점검을 받기도 했다.

타격 재능으로는 '고졸 루키' 이상준도 빠지지 않는다. 지난 마무리캠프에서 당시 타격 코치로 이상준을 지켜봤던 이범호 감독이 "조인성과 강민호 같은 선수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한승택은 수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포수다. 한승택은 개막전에서 2점, 두 번째 경기에서는 1점의 긴박한 승부에서 불펜 투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승리의 세리머니를 함께 했었다.

주효상도 호주와 오키나와로 이어진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어필 무대를 갖기도 하는 등 KIA의 포수 자원이 풍성해졌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IA 안방도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토트넘 '400경기 클럽' 가입

비유럽 선수 최초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트넘 홋스퍼에서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토트넘 소속 비유럽 선수 최초의 '400경기 클럽' 가입이다.

손흥민은 3일 영국 런던의 런던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31라운드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1-1 무승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400번째 경기였다. 토트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기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올렸다.

손흥민은 1882년 창단한 토트넘 역사를 통틀어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번째 선수다.

이 부문 최고는 1969년부터 1986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스티브 페리맨(854경기)이다.

역시 10년 이상 토트넘에 몸담은 센터백 게리 마버트(1982~1998년)가 2위(611경기)고, 1960~1970년대에 뛴 팻 제닝스(1964~1977년·590경기)와 시릴 놀스(1964~1975년)가 각각 3, 4위다.

이 목록에서 1992년 EPL이 창설된 이후에 토트넘에 입단한 선수들만 추리면 손흥민은 3위까지 오른다. 1, 2위 역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다.

손흥민 이전에 토트넘 주장으로 활약했던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현 LA FC·2012~2023년·447경기)가 이 부문 1위다. 역대로 보면 7위다.

손흥민과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다가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떠난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2011~2023년·435경기)이 그 뒤를 잇는다. 역대로는 10위다.

케인은 2015년 입단한 손흥민과 동고동락하며 EPL 역대 최다 합작 골(47골)의 진기록을 쓰기도 했다.

손흥민보다 역대 출전 순위에서 한 계단 위에 있는 선수는 1955년부터 1965년까지 뛴 수비수 모리스 노먼(13위·411경기)이다.

손흥민이 올 시즌 리그에서 8경기를 남겨둔 만큼, 깜짝 이적이 없다면 다음 시즌에는 노먼을 비롯해 12위 존 프랫(1969~1980년·415경기), 11위 필 빌(1963~1975년·420경기)의 기록은 무난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 케인의 기록도 충분히 사정권이다.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명 가운데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온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골잡이 손흥민은 구단 통산 득점 부문에서는 순위가 훨씬 높다.

30라운드 루턴 타운과 홈 경기에서 2-1을 만드는 결승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159골)를 넘어 이 부문 5위(160골)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케인(280골)이고, 지미 그리브스(266골), 보미 스미스(208골), 마틴 치버스(174골)가 뒤를 이었다.

뜻깊은 기록을 세운 웨스트햄전이지만 손흥민은 침묵했다.

3월 한 달 동안 소속팀, 국가대표팀을 합친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쓸어 담은 손흥민이지만 이날은 공격포인트가 없이 슈팅 2회, 유효슈팅 1회를 기록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15골 8도움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9회초에 터진 안타…이정후 6경기 연속 출루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마무리 에번 필립스를 공략해 안타를 생산하며 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3일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MLB) 정규리그 다저스와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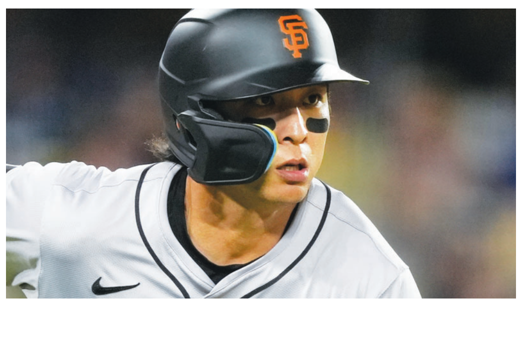
삼진 2개를 당하는 등 네 번의 타석에서는 고전했지만,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이정후는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필립스의 시속 150㎞ 컷패스트볼을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16에서 0.292(24타수 7안타)로 떨어졌다.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 나온 안타로 MLB 데뷔전 포함 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벌였다.

출발은 불안했다.

이정후는 1회초 '오프너'로 등판한 라이언 브레이저의 3구째 시속 153㎞ 높은 직구에 배트를 헛돌려 삼구삼진을 당했다.



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이정후는 이날 전까지 타석에서 공 92개를 봤고, 두 차례만 헛스윙을 했다.

MLB 정규시즌에서 본 95번째 공에 세 번째로 배트를 헛돌리면서 이정후는 이번 시즌 세 번째 삼진을 당했다. 앞서 당한 삼진 두 개는 서서 당한 '루킹 삼진'이었다.

2회 2사 1·2루 타점 기회에서 이정후는 왼손 라이언 야브로의 시속 114㎞ 커브를 공략했으나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는 5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야브로의 시속 122㎞ 커브를 받아쳐 타구를 외야로 보냈지만, 공은 다저스 좌익수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글러브로 들어갔다.

7회에는 마이클 그로브의 바깥쪽 스트라이크존을 걸치는 시속 140㎞ 슬라이더를 지켜보다가 삼구삼진으로 돌아섰다. 올 시즌 네 번째 삼진이다.

이정후는 MLB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다저스 마무리 필립스를 상대로 안타를 쳐 1루를 밟았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에 4-5로 패해 3연패 늪에 빠졌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다. 서울에서 벌인 개막 2연전을 포함해 시즌 8경기를 치른 오타니가 무안타로 돌아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송정동초 야구,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 출전

광주센트럴병원장배 초교야구 우승

송정동초가 광주 야구 대표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다툰다.

송정동초는 지난 2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제11회 광주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송정동초를 포함해 서림초·서석초·학강초(이상 A조), 대성초·수창초·화정초(이상 B조) 등 7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대결을 벌였다.

송정동초는 첫째 날 학강초를 5-0으로 꺾은 뒤 서석초를 4-2로 이기면서 연승을 달렸다. 이어 서림초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7-0, 5회 콜드 게임승을 장식한 송정동초는 A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송정동초는 수창초와의 준결승에서 5-4 승리를 거뒀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대성초를 6-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송정동초는 이번 우승으로 오는 5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티켓을 획득했다. 중등부에서는 동성중이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대회 시상내역

▲우승 : 송정동초 ▲준우승 : 대성초 ▲최우수선수상 : 김민욱(송정동초) ▲우수투수상 : 고윤성(송정동초) ▲타격상 : 이태궁(11타수7안타·타율 0.637·송정동초) ▲최다도루상 : 김승우(7개·송정동초) ▲최다타점상 : 이태궁(8타점·송정동초) ▲감투상 : 김도휘(대성초) ▲미기상 : 정혁진(대성초) ▲감독상 : 정재열(송정동초 감독) ▲지도상 : 명진(송정동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홈경기 일정 변경 확인하세요

울산현대 AFC챔스리그 진출로 이달 20일·내달 18일 경기 변경

울산현대의 AFC챔피언스리그(ACL) 4강 진출로 광주FC의 홈 경기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울산, 13라운드 광주-전북의 경기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예정됐던 8라운드 울산전은 4월 20일(토) 오후 2시에서 5월 15일(수)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됐다.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휴일이다.

이어 5월 18일(토)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13라운드 전북전도 다음 날인 5월 19일로 옮겨 오후 4시 30분 치르도록 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울산의 ACL 4강 경기에 따른 것이다.

울산은 오는 17일(수)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로 ACL 동아시아지역 4강 1차전을 갖는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24일에는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4강 2차전을 벌인다.

울산의 일정에 따라 광주의 K리그1 8라운드 경기가 5월 15일로 연기됐고, 이어 5월 19일 예정된 경기도 하루 밀어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